# 근대사와 아나키즘 등장

아나키즘 연구가 다니엘 게렝은 쭉아나키즘쭌에서 아나키스트와 마르크시스트의 관계를 '형제이자 적'이라고 표현했다.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형제지만 좌파 전체주의를 공격한다는 점에서 적이다. 일제는 물론 좌파 전체주의와도 치열하게 싸운 존재가 아나키스트들이었다.

1920년 6월 20일부터 29일까지 서울시 종로 중앙청년회관에 스무 명 정도가 모여 무엇인가를 열심히 배우고 있었다. 시인 김억(金億)이 가르치는 에스페란토(Esperanto)어 강좌였다. 강좌를 마친 이들은 30일 시내 장춘관에서 모임을 갖고 '조선 에스페란토 협회'를 결성했는데 회두(會頭)로는 김억, 부회두로는 이병조(李秉祚)를 선출했다. 이 무렵 국내에는 에스페란토어에 큰 관심이 일고 있었다. 동아일보 1920년 6월 24일자에는 투고생(投稿生)이 쓴 '청년 제군에게, 에스페란토를 권(勸)함'이란 글이 실렸다. 그는 "에스페란토는 일명 세계공통어라 칭하는 것이요……그 조직이 극히 간명(簡明)하고 그 문법이 극히 단순해 서양 어학(語學) 중 한 개 언어를 조금만 이해(少解)하는 사람은 4~5일 내에 학습할 수 있는 것이외다"라고 말하고 있다.

에스페란토어는 1887년 유대인 안과의사 자멘호프(Zamenhof: 1859~1917)가 창안한 국제어다. 자멘호프는 제정 러시아의 비아리시토크(Bialystok: 현재는 폴란드령)에서 출생했는데 이곳은 러시아인, 폴란드인, 독일인, 유대인 등이 어울려 살던 다민족 사회였다. 그의 모국어는 부친의 언어인 러시아어였지만 모친의 언어였던 유대계 이디쉬어(Yiddish)도 유창했고 폴란드어도 구사할 수 있었다. 부친이 독일어 교사였던 자멘호프는 프랑스어, 라틴어, 그리스어, 히브리어, 영어를 익혔고 이탈리아어와 스페인어, 리투아니아어에도 흥미를 가졌다. 자멘호프는 각 민족 사이의 언어 불통을 해소하는 것이 여러 민족 사이의 평화를 가져오는 주요한 수단이라는 생각에서 다양한 언어 실력을 기반으로 에스페란토어를 창안했는데, 1910년 노벨평화상 후보에 오를 정도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영어가 현재 국제 공용어 비슷한 지위를 차지한 것은 제국(帝國) 미국의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의 결과지만 에스페란토어는 모든 국가, 모든 민족이 동등하다는 철학에서 나온 국제 공용어였다. 그런데 1907년 암스테르담에서 개최된 국제 아나키스트 대회는 에스페란토어를 아나키즘 공식 언어로 채택했다. 전세계 아나키스트들은 에스페란토어로 서로 소통했던 것이다. 1902년 도쿄대생 게무야마 센타로(煙山專太郎: 1877~1954)가 근세 무정부주의(無政府主義)에서 아나키즘(Anarchism)을 무정부주의로 번역하면서 아나키즘은 동아시아에서 '무질서, 혼돈'을 뜻하는 것으로 오해 받아왔다.

아나키즘은 그리스어의 '아나르코(anarchos)'에서 나온 말로서 '없다(an)'와 '지배자(arche)'라는 뜻의 합성인데, 글자 그대로 '지배자가 없다'는 뜻이다. 아나키즘은 각 개인, 각 지방, 각 조직이 자유롭고 동등한 권리 속에서 서로 연합해 정부를 구성하자는 것이지 정부 자체를 부정하는 사상은 아니다. 아나키즘이 억압과 제국주의에 맞서는 이론적 배경은 러시아 크로포트킨(Kropotkin: 1842~1921)이 주창한 상호부조론(相互扶助論)에 있다. 크로포트킨은 상호부조론: 진화의 한 요인(Mutual Aid: A Factor of Evolution: 1902)에서 서로 돕고 의존했던 생물종들은 진화에서 살아남았고, 서로 협력하지 않고 돕지 않는 종은 도태되고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다윈의 진화론을 인간 사회에 적용하려던 두 사상이 영국 스펜서(Spencer: 1820~1903)의 사회진화론과 크로포트킨의 상호부조론이다.

Katedro Esperanta

第四課 文 法

아나키스트들의 공식 언어였던 에스페란토어를 만든 자멘호프. 그는 1910년 노벨평화상 후보로도 올랐다. 4 김억의 에스페란토어 연재. '동광' 제9호(1927년 1월호)부터 15호까지 연재했다.

스펜서의 사회진화론은 강자의 약자 지배를 정당화해 제국주의 침략을 옹호하는 정치철학이 되었다. 반면에 크로포트킨의 상호부조론은 피압박 개인과 민족의 해방을 위한 정치철학이 되었다. 국제노동절(International Workers' Day: 메이데이)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발생한 8시간 노동제 쟁취 총파업에서 비롯된다. 경찰의 발포로 사망자가 발생하자 노동자들은 헤이마켓(Haymarket) 광장에 모여 대규모 항의시위를 전개했는데, 시위 도중 폭탄이 터지는 아수라장 속에서 다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이 시위를 조직한 아나키스트 8명을 경찰 살해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 5명은 사형, 3명은 금고형을 선고 받았다. 7년 후 사건 조작이 드러나면서 미국 사회는 큰 충격을 받았고 일리노이 주지사 게르드는 구금되었던 3명을 특별사면했지만 아나키스트 아돌프 피셔(Adolph Fischer) 등 4명은 1887년 11월 이미 교수형을 당했고, 한 명은 그 전날 자살한 후였다.

아돌프 피셔는 "아나키스트라면 누구나 사회주의자지만 사회주의자라고 반드시 아나키스트는 아니다"라는 말을 남겼다. 양자를 가르는 기준은 좌익 전체주의에 대한 입장 차이에 있다.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러시아어로 번역했던 바쿠닌이 '과도적 독재' 즉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에 대해 "마르크스처럼 총명한 사람이 어떻게 그러한 것을 생각할 수 있었을까 의심할 수 있을 정도로, 상식과 역사적 경험에 어긋나는 사설(邪說)이다"라고 비판한 것처럼 아나키즘은 우익은 물론 좌익 전체주의도 강하게 비판했다. 흔히 "공산주의가 이론은 좋지만…"이라고 말하지만 아나키즘은 공산주의 이론 내에 전체주의의 씨앗이 내재되어 있다고 비판하는 사상이다.

바쿠닌은 1870년대에 "(극도로 과격한 혁명가에게) 러시아 인민 전체 위에 군림할 왕좌를 주거나 독재권을 줘 보라…1년도 못 가서 그는 차르(황제)보다 더 악독한 자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스탈린 집권 50~60년 전에 이미 좌파 전체주의 출현을 예견했다. 러시아 혁명에 참가했다가 서유럽으로 망명했던 볼린(Volin)이 "정치권력은 불가피하게 관료적 강제기구를 만들어낸다…(국가 사회주의자들은) 일종의 새로운 귀족·지도자·관료·군인·경찰관·여당…을 산출한다"고 비판한 것도 마찬가지 맥락이다. 좌파 전체주의에 인민들이 극도의 고통을 겪었던 러시아나 중국, 그리고 지금의 북한 현실을 예견한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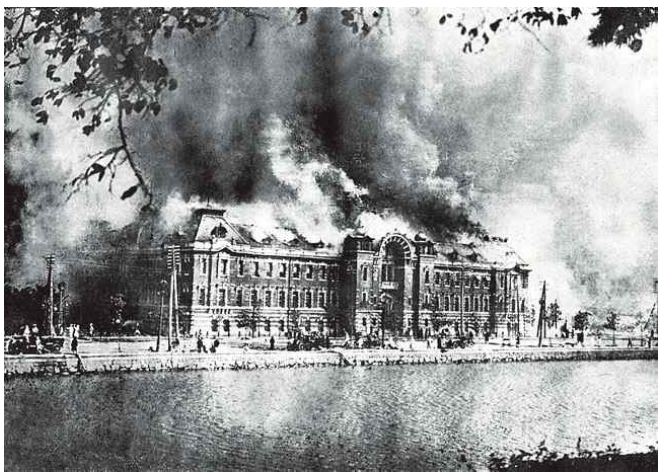
스펜서의 사회진화론은 국내에서 실력양성론이란 민족 개량주의 노선으로 나타난다. 이에 한계를 느낀 재일 유학생들은 아나키즘을 받아들였다. 1920년 1월 도쿄에서 결성된 조선고학생동우회(苦學生同友會)는 아나키즘 색채가 짙은 단체였다. 1921년 10월 김약수·박열·김사국 등이 조직한 '흑도회(黑濤會)'도 아

나키즘 색깔인 흑색(黑色)을 사용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아나키즘 조직이었지만 결성 직후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김약수 등과 노선갈등을 겪다가 박열·정태성·홍진후 등이 따로 흑우회(黑友會)를 결성했다. 흑우회 기관지가 강한 조선인(太い朝鮮人)인데, 강한(太い: 후토이)의 발음이 불령(不逞: 후테이)과 비슷했다는 이유니 실제 명칭은 불령조선인(不逞朝鮮人)이었다.(새 사상이 들어오다②사상단체의 등장 참조)

1920년 4월 서울 황금정(을지로) 광무대(光武臺)에서 발족한 조선노동공제회는 선언에서 “만일 우리 인류가 진정한 평화세계와 복지사회를 동경하고 원구(願求)한다면 정복민족과 피정복민족이 없는 세계, 특권계급과 노예계급이 없는 사회인 것이다. 고로 약소민족은 강대민족으로부터, 천자(賤者)는 귀자(貴者)로부터, 빈자(貧者)는 부자로부터 각각 해방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 강령 중에 “각종 노예의 해방과 상호 부조를 기(期)함”이라는 내용도 있어서 조선노동공제회도 아나키즘에 경도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조선총독부와 일경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아나키즘 조직이었다. 직접행동을 주창하기 때문이었다. 동아일보 1925년 4월 30일자는 청주경찰서 고등계가 교사 신○○를 연행해 취조 후 비밀리에 경성 경찰서로 보냈는데 ‘사건 내용은 절대 비밀에 부쳐서 알 수 없으나 탐문한 바에 의하면 흑기연맹(黑旗聯盟) 사건과 맥을 통한 혐의’라고 보도하고 있다. 일제의 예심(豫審) 종결 전문(全文)에 따르면 1925년 4월께 서울 낙원동 수문사(修文社)에서 조직한 흑기연맹은 “일본의 현재 정치 및 경제 제도 변혁(變革)을 목적으로 한 무정부주의자 결사조직”이라고 전하고 있다.

흑기연맹은 조직 결성 혐의로 이창식(李昌植), 서상경(徐相庚), 홍진유(洪鎭裕) 등 9명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 중 서상경·홍진유는 재일 아나키스트 박열(朴烈) 등이 1923년 4월 비밀결사 불령사(不逞社)를 조직하고 그해 10월 일본 왕세자 히로히토의 혼례식 때 일왕을 암살하려 했다는 이른바 대역사건에 연루되었던 인물들이었다. 서상경·홍진유는 예심에서 석방되자 귀국해 이창식·신영우(申榮雨)·서정기(徐廷夔)·한병희(韓昞熙)·이복원(李復遠) 등과 흑기연맹을 결성했던 것이다. 흑기연맹은 비록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기 전에 일경의 검거로 와해되었지만 이는 국내에 직접행동을 주창하는 아나키즘 조직이 본격적으로 등장했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아나키즘의 특징은 개인의 절대적 자유를 추구하는 것과 직접행동을 추구한다는 점이다.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 독재도 부인하고, 혁명의 결정적 순간까지 기다리지도 않는다. 지금, 이 순간 목숨을 던져 직접행동에 나서기에 일제는 아나키즘을 두려워했다.



도쿄대지진 때 불타는 도쿄경시청. 일본은 도쿄대지진의 혼란을 한인들에게 돌리기 위해 유언비어를 유포해 한인들을 무차별 학살했다. [사진가 권태균]

일본에서 고학 중이던 아나키스트 홍진유(洪鎭裕)는 1922년 도쿄 간다(神田)의 조선기독교청년회관에서 열린 조선인노동조사회 창립대회에 참석했다. 일본 니가타현(新潟縣)에서 발생한 한인 노동자 학살사건이 계기가 되어 창립된 단체였다. <새 사상이 들어오다③ '일본유학생과 북풍회' 참조>

홍진유는 "나는 그날 일을 마치고 돌아가던 중 방청하러 가서 보니 조선인 공산주의자인 김약수가 그 모임의 사회를 보고 있었다. 내가 보니 노동조사회에 노동자 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서 이상하게 생각했고, 김약수 일파가 매우 뻐기면서 노동자에 대해 잘 아는 것처럼 말을 해서 나는 야유를 퍼부었다"(홍진유 제2회 신문조서)고 전하고 있다. 이때 신영우(申榮雨)가 주소를 가르쳐 달라면서 "노동자의 일은 노동자 자신이 해야 한다. 저들은 야심으로 한다"고 말하고, 반 달쯤 후에 찾아와 박열(朴烈)을 알게 되고 흑우회(黑友會)를 만들게 되었다고 전한다. 재일 유학생들이 만든 흑도회(黑濤會)는 아나키즘과 볼셰비즘 사이의 노선투쟁인 '아나-볼 논쟁'을 거치면서 아나키즘 계열은 흑우회가 되고 공산주의 계열은 북성회(北星會)로 갈라섰다.

박열·홍진유 같은 20대 초반의 고학생들이 흑우회를 결성하고 김약수·김종범 같은 20대 후반~30대의 유학생들이 북성회를 만들었다는 특징도 있다. 흑우회에는 박열의 부인 가네코 후미코(金子文子)와 구리하라 가즈오(栗原一男) 같은 일본인 아나키스트들도 함께했다. 박열은 흑우회 기관지 '후테이 센징(太い鮮人)'을 1923년 3월부터는 보다 온건한 제목의 '현사회(現社會)'로 바꾸어 발행하기도 했지만 근본적으로 '직접행동가'였다.

1 가네코 후미코. 박열의 부인이자 아나키스트였다. 23세에 옥중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2 박열과 가네코. 옥중에서 찍은 이 사진은 일본에 큰 여파를 일으켰고 사진 촬영을 허가한 판사가 파면당하고 와카쓰키 내각도 무너졌다.

그는 일왕(日王) 및 주요 인사들이 모이는 곳에 폭탄을 터뜨리는 것을 당면 목표로 삼았다. 박열은 무산자동맹회의 초청으로 니가타현 한인 노동자 학살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1922년 9월 서울에 와서 김한(金翰)을 만났다. 박열은 김한이 의열단과 관계 있다는 사실을 알고 폭탄 구입을 요청했다. 박열은 11월 다시 서울로 되돌아와 김한에게 "늦어도 1923년 가을까지는 폭탄을 인계해 달라"고 요청했다. 1923년 11월로 예정되어 있는 왕세자 히로히토(裕仁)의 결혼식을 염두에 둔 것이다.

박열 부부는 1923년 4월 정태성·홍진유·육홍균·이필현, 구리하라 가즈오, 니야마 하쓰요(新山初代) 등과 도요타마군(豊多摩郡) 요요하타초 요요기도미카야 1474번지 2층 셋집에서 따로 불령사(不逞社)를 조직했다. 박열이 '불령사'라는 나무 간판을 집 밖에 내건 것처럼 비밀조직은 아니었다. 정태성은 "불령사에서는 아나키즘 연구뿐만 아니라 직접행동도 논의되었지만 직접행동은 회원들의 자유의지에 맡기기로 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역시 직접행동에 나서기로 한 것은 박열이었다.

박열은 1921년 12월 외항선원 모리다(森田)를 통해 외국에서 폭탄을 구입할 것을 논의하기도 하고, 약국 수백 군데에서 폭약 판매 허용치인 0.02g씩을 사 모아 폭약을 제조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그래서 박열은 서울의 기생 이소홍(李小紅)을 통해 여성용 손수건에 알파벳과 숫자를 조합한 암호편지를 김한에게 보내 폭탄 구입을 재촉했다. 그러나 김한이 1923년 1월 의열단원 김상옥(金相玉)의 서울 종로경찰서 폭탄 투척 사건과 관련되어 체포되는 바람에 무산되었다.

박열은 포기하지 않고 김중한(金重漢)에게 '조선에 돌아가 폭탄을 구해 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김중한은 '귀국하면 수행해 보겠다'고 답했다. 그런데 박열은 훗날 일제 신문조서에서 "다른 방법에 의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로 생각을 굳히고 있어서 김중한에게 부탁했던 것을 거절했다"고 전하고 있다. 그러자 김중한과 애인 니야마 하쓰요는 불령사 모임 때 박열에게 크게 항의하고 8월 31일 도쿄역에서 야간열차를 타고 조선으로 돌아갔다.

다음 날인 9월 1일 낮 12시 도쿄 일대에 대지진이 발생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10만5000여 명이 사망하고, 10만9000여 동이 무너지고, 21만2000여 동의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다. 일본인들이 공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그날 오후부터 돌연 "조선인이 방화했다" "우물에 독약을 탔다"는 유언비어가 퍼져 나갔다. 일본 각의는 이날 밤 계엄령을 발동하고 군대를 출동시켰는데, 일본 내무성은 '어딘지 모르게 흘러나온 조선인 폭동을 진압하기 위한 조치'라고 발표했다.

'도쿄일일신문(東京日日新聞)' 9월 3일자에 "불령선인(鮮人) 각소(各所)에 방화, 제도(帝都)에 계엄령 선포"라고 보도했다. 아이치현(愛知縣)의 '도요하시(豊橋)일일신문' 9월 5일자는 "대화재(大火災)의 원인은 지진도 있지만 일면에는 불령선인 수천 명이 폭탄을 투하하고 시중에 방화한 데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대지진의 공포를 한인과 아나키스트·사회주의자 등으로 돌리려는 일본 극우세력의 조직적 음모였다. 이 때문에 저명한 아나키스트 오스기 사카에(大杉榮) 부부 등이 헌병 장교에게 살해되고 일본 노동조합 간부들도 살해되었다.

가장 집중적인 피해를 본 사람들은 재일 한인들이었다. 재향군인 등으로 구성된 자경단(自警團)은 무차별 한인 학살에 나섰다. 살해된 한인들의 숫자에 대해서 일본 사법성(司法省)은 233명이라고 발표했지만 도쿄대 교수를 역임한 요시노 사쿠조(吉野作造)가 2613명이라고 발표할 정도로 실상을 축소·왜곡한 숫자였다. 상해 임정의 '독립신문'은 6661명이라고 보도했다. 한인으로 오인되어 살해된 일본인이 59명에 달했으니 얼마나 무차별 학살이 이루어졌는지 짐작할 수 있다.

일본 군부와 경찰은 9월 3일부터 “불령선인들을 수색하고 선량한 조선인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한인들을 검속했다.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가 9월 3일 새벽 세다가야(世田谷)경찰서로 연행된 것을 비롯해 정태성·장상중·최규종·홍진유 등 불령사 회원들이 일제히 검속되는 등 모두 6200여 명의 한인이 검속되었다. 박열을 연행한 일본 경찰이 집주인에게 “영구히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르니 다른 사람에게 집을 빌려주는 게 좋겠다”고 말했던 것처럼 의도적 검속이었다.

일본 정부는 10월 16일에야 한인 대학살 사건에 대한 신문 기사를 해금시키는 한편, 10월 20일 느닷없이 불령사 회원 16명을 비밀결사 조직 혐의로 검사국에 기소했다. 일경은 불령사를 “무정부주의 경향의…사회운동 및 폭력에 의한 직접행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밀결사 단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불령사는 간판까지 내건 공개 조직이란 점에서 전형적인 희생양 만들기였다.

박열 부부에게는 왕세자 결혼식 때 일왕 등을 암살하려 했다는 혐의를 씌워 형벌이 사형 하나뿐인 대역죄(大逆罪)를 적용했다. 그 유일한 근거는 김중한의 애인 니야마 하쓰요가 그런 말을 전해 들었다는 진술뿐이었다. 일제 검찰은 1924년 2월 14일 박열 부부와 김중한에 대해 ‘천황 폐하와 황태자 전하에게 위해를 가하려 한 대역 예비죄’라고 예심을 종결지었지만 폭탄 구입에 관해 논의한 것을 대역죄로 모는 것은 무리였다. 그래서 나머지 불령사 회원들은 예심 종결과 함께 1924년 6월 방면돼 이 가운데 홍진유와 서상경은 귀국해서 흑기연맹을 만들었다.

박열 부부 재판은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가네코 후미코는 일본의 국가 사회제도를 ‘제1계급-황족, 제2계급-대신 및 기타 실권자, 제3계급-민중’으로 나누고 “황족은 정치의 실권자인 제2계급이 무지한 민중을 기만하기 위해 날조한 가엾은 꼭두각시이자 나무인형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해 큰 충격을 주었다. 박열도 결혼식에 폭탄을 투척할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다. 앞에서 박열이 “다른 방법에 의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로 생각했다”고 서술했는데, 해방 후 흑우회원 최영환(崔英煥)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상해에서 도쿄까지 실제로 폭탄을 운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쿄 대지진이 일어나지 않아서 예정대로 결혼식이 거행되었으면 폭탄을 투척했을 것”이라고 증언하기도 했다.

1926년 3월 판결공판 때 사형을 선고하자 박열은 “재판장, 수고했네”라면서 “내 육체야 자네들이 죽일 수 있지만 내 정신이야 어찌하겠는가?”라고 태연했고, 가네코는 판결 순간 “만세!”라고 외쳐 재판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가네코는 “모든 것이 죄악이요 허위요 가식이다”라고 덧붙였다.

두 사람은 대역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무기로 감형되어 각각 다른 감옥으로 이감되었는데, 도치기현 우쓰노미야(宇都宮) 형무소로 이감된 가네코가 1926년 7월 23일 갑자기 사망했다. 형무소 측은 자살로 발표했지만 후세 다쓰지(布施辰治) 변호사와 원심창(元心昌) 등 흑우회원들의 사인 규명과 시신 인도 요구를 모두 거절해 ‘타살 의혹’이 짙어졌다. 옥중에서 “한 번은 저버린 세상이지만/글 읽으니/가슴에 솟는 가여운 슬픔”(<ec2e>나는 어디까지나 불행했나이다

<ec2f>)이라는 시를 짓기도 했던 가네코는 23세에 불과했다. 박열은 일제 패망 후인 1945년 10월 27일에야 아키다(秋田) 형무소에서 22년 만에 석방되었다

아나키즘은 국제 연대조직이었다. 그래서 한국 아나키즘 사건에는 대부분 일본인들이 동지로 참여하고 있었다. 한국인들은 피압박 민족의 견지에서, 일본인들은 피압박 민중이란 견지에서 사물을 바라보니 민족의 틀을 넘어서 동지로서 연대할 수 있었던 것이다.

福田大將謀殺—
暴力團關係者
朝鮮女子黨員公判

관동대지진 때의 계엄사령관 후쿠다 마사타로를 암살하려 했던 사건의 공판 결과가 실린 1925년 동아일보의 지면이다. 한국 여성과 일본 아나키스트가 연계된 사건이다. [사진가 권태균]

1923년 9월의 도쿄대지진, 곧 관동(關東)대지진으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을 때 계엄사령관은 군부 실력자 후쿠다 마사타로(福田雅太郎·1866~1932) 대장이었다. 일본 극우파는 대지진 때 '아나키스트·사회주의자·재일 한인들이 우물에 독약을 풀었다'는 등의 유언비어를 퍼뜨려 많은 사람을 학살했다. 그중 헌병 대위 아마카스 마사히코(甘粕正彦)가 아나키스트 오스기 사카에(大杉榮)와 동지 이토 노에(伊藤野枝) 및 일곱 살짜리 조카 다치바나 무네카즈(橘宗一)를 죽여 시신을 우물에 던지는 '아마카스 사건(甘粕事件)'을 일으켜 큰 충격을 주었다(새 사상이 들어오다② 사회주의 단체 조직 참조).

저명한 사상가 오스기 사카에가 처참하게 학살당한 사건은 큰 물의를 일으켰고 후쿠다는 계엄사령관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듬해 아나키스트 와다 규타로(和田久太<90CE>·1893~1928) 등이 관동대지진이 발생했던 9월 1일 전 계엄사령관 후쿠다를 저격해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도쿄아사히신문(東京朝日新聞·1924. 9.2~5) 등에 따르면 와다 규타로는 오스기에 대한 복수라고 주장했다고 전한다. 비록 후쿠다의 목숨을 끊는 데는 실패했지만 일본 극우파의 무차별 테러행위에 대한 응징이란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그런데 와다 규타로는 기로틴(ギロチン)사의 나카하마 데쓰(中浜哲)·후루타 다이지로(古田大次<90CE>) 등과 손잡고 후쿠다 저격에 나선 것이었다. 나카하마 데쓰는 1922년 8월 '자유노동

자동맹'을 결성하고 박열과도 만나서 니가타 현에서 발생했던 한인노동자 학살사건을 함께 조사했던 아나키스트였다. 단두대를 조직 명칭으로 삼은 기로틴사는 22년 결성된 직접 행동조직이었는데, 나카야마 데쓰가 박열의 동지라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무렵 한인과 일본인 아나키스트들은 서로 동지였다. 일왕(日王)을 암살하려 했다는 이른바 박열·가네코 후미코의 대역사건에 연루되었다가 석방된 서동성(徐東星)은 25년 9월 대구에서 진우연맹(眞友聯盟)을 결성하는데 진우연맹은 기로틴사와 관계를 맺고 있었다.

眞友聯盟關係
朴烈同志를大邱로護送
東京自我人社員梁原外二名
朴烈親兄渡來

아나키스트 단체인 진우연맹 관련 기사를 다룬 당시 동아일보의 지면이다. 일본 아나키스트들이 대구로 함께 호송됐다는 제목이 눈에 띈다.

경상북도 경찰부에서 작성한 <ec2e>고등경찰요사(要史)<ec2f>는 25년 11월 진우연맹이 방한상(方漢相)을 오사카·나고야·도쿄 등에 몰래 보내 일본의 자아인사(自我人社)·자연아연맹(自然兒聯盟)·기로틴단(團)등과 교섭했다고 전하는데, 기로틴단이 바로 기로틴사를 뜻한다. 기로틴사는 학살자였던 헌병 대위 아마카스 마사히코도 습격하고 후쿠다 자택에도 폭탄을 보내는 등 계속 응징에 나서 일경이 대대적인 수사를 전개하는데 그 와중에 한인 독립운동가들이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다. 함북 명천(明川) 경찰서 고등계는 한인 여성 김선희(金善姬)와 전정화(全鼎花)를 체포하는데 기로틴사의 후루타와 그 동지 타카시마(高島三次)와 접촉한 혐의였다.

25년 12월 청진 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따르면 후루타와 다카시마는 23년 서울 견지동에서 전정화를 만나 권총과 폭탄을 구해달라고 부탁했다. 전정화는 후루타와 다카시마를 김선희에게 소개하는데, 간도 출신의 김선희는 남편 황돈(黃敦)이 제령 위반으로 징역 8년의 중형을 받고 복역 중이었으며, 그 부친은 간도에서 일본군 토벌대에 살해당한 독립운동가였다. 이때 후루타 등이 요구한 것은 의열단의 폭탄 10개와 권총 5정이었다. 결과적으로 무기 구입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선희와 전정화는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일본 아나키스트들도 박열 못지않은 탄압을 받아 24년 9월 체포된 기로틴사의 나카하마 데쓰는 이듬해 5월 사형을 구형받았다가 무기로 감형되었고 후루타 다이지로는 사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해 26년 4월 교수형을 당했다. 이처럼 일본인 아나키스트도 사형시키는 판국이니

이들과 연결된 국내의 진우연맹이 무사할 리 없었다. 일경은 26년 8월 11명의 진우연맹원들을 검속했다. 이 당시 독립운동가들은 보통 1년 이상 구속 상태에서 무지막지한 고문을 당하면서 신문받았는데, 이 기간은 판결 때 구속 일수에 포함되지도 않았다. 동아일보 27년 2월 28일자는 "진우연맹원들이 대구형무소 벽을 두드리면서 '구속 1년이 넘은 현재까지 예심도 종결하지 않고 가족 면회도 시키지 않는다'면서 22일부터 단식투쟁에 돌입했다"고 전하고 있다.

대일항쟁기 때 독립운동가들의 옥중 단식투쟁은 묻혀 버리기 일쑤였지만 진우연맹원들의 단식투쟁은 세상의 이목을 끌었고 일제는 부랴부랴 재판을 진행해 3월 8일 예심을 종결했다. 방한상·신재모(申宰模) 등 9명의 한인들과 도쿄에서 압송당한 구리하라(栗原一郎) 등 2명의 일본인들이 피고였다. 27년 5월 대구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는 수백 명의 방청객이 쇄도했는데 용수가 벗겨지자 연맹원들은 서로 악수하면서 방약무인한 태도를 지었다고 전한다. 야마자와(山澤) 검사의 방청 금지 요청을 가네다(金田) 재판장이 받아들이자 구리하라가 "공개 금지 이유를 말하라"면서 재판장을 크게 꾸짖어 소동이 벌어졌다. 기자도 내쫓고 피고 가족 10여 명만 입석시킨 채 재판이 속개되자 변호사들이 항의 퇴정했다.

일제가 재판을 비공개로 하려고 했던 이유는 진우연맹원들의 혐의 때문이었다. 이들의 혐의는 '대구 부내의 관청과 회사·은행·우편국·신문사 등을 폭파하려는 음모'였다. 대구 지방법원장과 대구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언도공판에서 김정근(金正根)과 구리하라 등은 징역 10년, 방한상·신재모 등은 징역 5년 등이 구형되었는데 피고들이 재판장에게 노호(怒號)해서 주위가 크게 소란했다고 전하고 있다.

26년 새해 벽두인 1월 4일에 서울 시내 곳곳에 허무당(虛無黨) 선언이란 인쇄물이 배포돼 일경에 비상이 걸렸다. 신문은 "시내 각 경찰서에서 비상하게 놀라서 각 서 고등계가 서로 연락하면서 대활동을 시작했다"고 전하고 있는데 동아일보(1926년 1월 8일)는 "허무당 선언에 관한 기사는 당국이 일체 게재를 금지했다"고 전하고 있다. 일경은 1월 12일 대구청년동맹 집행위원 윤우열(尹又烈)을 체포하는데 신문은 '모 중대사건'이라고만 표현해야 했다. 훗날 밝혀진 허무당 선언은 "우리를 박해하는 포악한 적에게 선전을 포고하자!"며 "우리가 부인하는 현세의 이 흉포악독하기가 사갈(蛇蝎·뱀과 전갈) 같은 정치, 법률 및 일체의 권력을 근본으로부터 파괴하자!"라고 덧붙이고 있다.

일제가 허무당 선언에 겁을 먹은 것은 "이 전율할 광경을 파괴하는 방법은 직접행동이 있을 뿐인데 혁명은 결코 언어와 문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유혈과 전사의 각오가 없이는 안 된다"라고 직접행동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총과 폭탄으로 일제에 직접 타격을 가하는 '직접행동'은 일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혁명 노선이었다. 허무당 선언은 "합법적으로 현 질서 내에서 혁명의 가능성을 믿는 자가 있다면 그는 저능아다. 우리는 죽음으로써 맹약하고 폭력으로써 조선혁명의 완수를 기하고자 허무당을 조직한다"고 주장했다. 허무당 선언은 "우리를 착취하고 학대하고 살육하는 포악한 적에 대해 복수의 투쟁을 개시하자! …포악한 적의 학대에 신음하는 민중들이여, 허무당의 깃발 아래 모이자! …최후의 승리는 우리 것이다. 허무당 만세! 조선 혁명 만세!"로 끝맺고 있다.

이처럼 직접 혁명을 주창하는 아나키스트들의 동향을 일제가 주시하는 와중에서도 27년 평안

도 지역에서는 관서흑우회가 만들어지고 29년 11월에는 조선무정부주의자연맹이 출범했다. 전국의 아나키스트들은 평양의 여성 사회사업가였던 '백선행(白善行) 기념관'에서 전조선흑색사회운동자 대회를 개최하고 조선무정부주의자 연맹을 결성하려 했지만 일제가 집회를 불허하자 평남 대동군 기림리 공설운동장 북쪽 송림에 전격적으로 모여 조선무정부주의자연맹을 결성한 것이다. 전국의 아나키스트들이 평양으로 집결하자 일경은 역과 여관 등지를 대대적으로 검문해 타지에서 온 아나키스트들을 체포하거나 평양 밖으로 추방했다.

이처럼 국내에서 일제의 그물 같은 경찰망 때문에 활동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조선공산당이 결성되자마자 와해되는 것도 일제의 탄압 때문이었다. 그래서 아나키스트들은 국외에 근거지를 둔 채 폭탄을 가지고 국내에 잠입하는 것으로 노선을 변경하는데 그런 대표적인 조직이 19년 11월 10일 길림 파호문(巴虎門) 반씨객점(潘氏客店)에서 결성된 의열단(義烈團)이었다. 동아일보 23년 4월 20일자는 "지난 19일 아침에 경기도 경찰부를 위시해서 시내 각 경찰서에서는 돌연히 긴장한 빛을 띄우고 각 기관 내를 엄중히 경계하는 동시에 모 중대 범인의 자취를 엄중히 추적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의열단원 한 명이 폭탄을 가지고 서울에 잠입했다는 정보 때문이라고 전하고 있듯이 의열단은 일제에 공포 그 자체였다.

독립만세 시위를 총칼로 진압하는 것을 본 청년들은 총에는 총으로 맞서는 직접 행동으로 전환했다. 의열단 소속의 청년들은 무기를 밀반입하고 몰래 입국해 기회를 엿보았다. 수세에 몰린 총독부는 의열단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의열단 대 총독부'의 구도가 만들어졌다.

아나키즘을 표방한 의열단이 만들어졌던 곳이다. 김원봉 등은 1919년 11월 길림성 파호문 밖 반씨 집이었던 이곳에서 의열단을 창건했다. [사진가 권태균]

일제 첩보 보고는 의열단 단장 김원봉이 평소에 "우리 단이 노리는 곳은 동경·경성 두 곳으로서 우선 조선 총독을 계속해서 5, 6명을 죽이면 그 후계자가 되려는 자가 없게 될 것이고, 동경 시민을 놀라게 함이 매년 2회에 달하면 한국 독립 문제는 반드시 그들 사이에서 제창되어 결국은 일본 국민 스스로가 한국 통치를 포기하게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라고 말했다고 전한다. 의열단이 결성 직후 '제1차 암살파괴계획'이라고 불리는 커다란 사건을 기획한 것은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1보였다. 조선 총독을 암살하고 조선총독부와 동양척식회사·조선은행·매일신보 같은 핵심 식민통치기구를 폭파하려는 계획이었다.
의열단의 이념은 아나키즘이었지만 그 창립 배경에는 민족주의 계열의 무장 항일투쟁 단체인 조선독립군정사(朝鮮獨立軍政司)가 있었다. 1919년 2월 말 길림에서 여준·조소앙·김좌진 등은 대한독립의군부(大韓獨立義軍府·이하 의군부)를 결성하는데, 의군부는 대한독립선언서에서 "육탄혈전으로 독립을 완성"할 것을 결의한 군부(軍府) 조직이었다. 의군부는 그해 4월 이상룡·유동렬·조성환·이장녕 등과 연합해 조선독립군정사(군정사)로 조직을 확대하는데, 군정사가 의열단 결성에 깊숙이 개입했다.(김영범 혁명과 의열)

김원봉이 스물한 살의 나이로 의열단 의백(義伯·단장)으로 추대된 데는 군정사의 회계책임자였던 처삼촌 황상규(黃尙奎)의 역할이 작지 않았다. 의열단은 군정사의 물적 지원이 필요했고 군

정사는 일제와 전면전을 벌이기 전까지 단기적 성과를 낼 직접 행동조직이 필요했다. 이런 양자의 필요성이 '천하의 정의의 일을 맹렬히 수행'할 의열단을 탄생시킨 것이었다. 군정사 대표로 임정 수립에 참여하러 상해로 갔던 조소앙은 이동녕·이시영 등과 1919년 4월 '급증하는 망명 청년들의 예기(銳氣)를 한 곳으로 응집'시킬 목적으로 상해 공동조계 내에 비밀리에 폭탄 제조 학습소 겸 권술(拳術)수련소를 설립했다.

1 김원봉과 처 박차정. 김원봉은 1931년 3월 12세 연하의 박차정과 결혼하는데, 박차정은 훗날 조선의용대에 가입해 1944년 일제와 전투 중 입은 부상으로 숨진다.

그해 6월 김원봉을 비롯해 청년들이 길림에서 상해로 와서 폭탄 제조법을 배웠다. 같은 달 상해에서 40여 명의 청년은 "작탄(炸彈·폭탄을 터뜨림)으로 구국의 책임을 부담"하겠다고 구국모험단을 결성하고 폭탄 제조와 사용법을 훈련받았다. 김원봉이 신흥무관학교에 입교한 것은 일본 육사 출신의 지청천(池靑天) 등에게 전문적인 군사교육을 받겠다는 의도도 있었지만 목숨 걸고 싸울 동지를 찾으려는 목적도 강했다. 그래서 결성 당시 의열단원 13명 중 8명이 신흥무관학교 출신이었다. 신흥무관학교의 김동삼은 중국인 폭탄기술자 주황(周況)을 무관학교로 초빙하는데, 주황을 대동하고 만주로 간 인물이 바로 김원봉이었다. 여러 움직임이 '폭탄 제조 및 투척'이란 한 가지 방향으로 집결되는 것이고, 그 실행 계획이 제1차 암살파괴계획이었다. 김원봉·곽재기·이성우는 1919년 12월 하순 길림에서 상해로 가서 이듬해 3월 폭탄 3개와 탄피 제조기 1개를 구해 돌아왔다. 탄피 제조기는 임정 내무총장 안창호(安昌浩)가 대양(大洋) 2000원짜리를 사서 기증한 것이니 안창호도 한 측면에서는 무장투쟁론자였던 것이다.

의열단은 폭탄들을 우편국을 통해 안동현 중국세관에 있는 영국인 유스 포인 앞으로 발송했다. 안동현에서 이 폭탄을 인수받기로 한 곽재기(郭在驥)는 직접 국내로 잠입해 암살파괴계획을 주도할 인물이었다. 곽재기는 안동현에 가서 임정 외교차장 장건상(張建相)의 서한을 포인에게 보이고 무기가 든 소포를 찾았다. 안동현 원보상회의 이병철(李炳喆)이 의열단 연락기관이었는데, 그는 고량미 20가마니 속에 폭탄을 넣어 위장하고 경남 밀양의 미곡상 김병환(金煥)에게 보냈다.

2 대일항쟁기 때 부산경찰서 전경. 박재혁은 의열단원 곽재기 등을 체포한 부산경찰서를 응징하기 위해 폭탄을 투척했다가 일제에 의해 사형당한다.

의열단은 폭탄 3개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다시 상해로 가서 프랑스 조계 오흥리(吳興里)에 거주하는 중국인 단익산(段益山)에게 폭탄 13개와 미국제 권총 2정 등을 더 구입했다. 이 무기들은 중국어에 능통한 의열단원 이성우(李成宇)가 중국식 의류상자 속에 넣은 채 상해발 이륭양행 소속 기선 계림환(桂林丸)을 타고 안동현까지 운반했다. 이 폭탄 역시 안동현의 이병철을 통해 마산의 미곡상 배중세, 밀양의 김병환, 그리고 진영의 미곡상 강원석에게 보냈다. 곽재기·이성우·황상규·윤치영 등 의열단원 10여 명은 국내로 잠입했고 김원봉과 강세우 등은 상해와 북경을 오가며 후방 지원 업무를 담당했다. 거사의 총지휘를 맡은 곽재기는 서울 공평동 전동(典東)여관에 지휘소를 설치하고 지방을 순회하면서 계획을 점검했다.

그런데 경기도 경찰부가 밀정의 제보로 5월 8일께 밀양 김병환의 집을 급습해 폭탄 3개를 압수하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의열단은 남은 13개의 폭탄으로 거사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거사 때 뿌릴 격문이 마련되지 못했고 일제가 비상 경계망을 펼치면서 폭탄의 서울 반입이 늦어졌다. 폭탄이 압수돼 긴장이 팽팽해진 상황에서 의열단은 1920년 6월 16일 서울 인사동의 한 중국음식점에서 비밀 회합했는데 경기도경 김태석(金泰錫)이 일경을 이끌고 급습했다. 윤세주(尹世胄)·이성우·황상규·이낙준·김기득·김병환 등이 체포되고 전국 각지에서 검거 선풍이 일었는데, 김태석은 1919년 사이토 총독에게 폭탄을 던진 강우규 의사를 체포했던 그 친일 경찰이었다(운동의 시대⑥ 청년노인 강우규 의사).

곽재기가 부산 복성(福成)여관에서 체포된 것을 비롯해 부산에서도 여러 명이 체포되었다. 1년여에 걸친 살인적인 심문 끝에 1921년 6월 곽재기·이성우는 징역 8년, 황상규·윤세주·김기득·이낙준·신철휴 등은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스물한 살 청년 윤세주는 검사의 구형에 "체포되지 않은 우리 동지들이 도처에 있으니 반드시 강도 왜적을 섬멸하고 우리의 최후 목적을 도달할 날이 있을 것"이라고 외쳤다. 1920년 8월 1일자 동아일보는 '직경 3촌(寸)의 대폭탄'이란 제목으로 "총독부를 파괴하려던 폭탄은 비상히 크고 최신식의 완전한 것"이라고 보도해 이것이 폭파되었을 경우를 상상하게 했다. 신한민보는 7년 후인 1928년 4월 5일자에 이성우의 석방 소식을 전하면서 "3·1 운동 이후 가장 세상의 이목을 놀라게 했던 제1차 의열단, 즉 밀양폭탄사건"이라고 표현하고 있듯이 의열단 사건이 준 충격파는 컸다.

일제가 의열단원 대검거에 광분하던 1920년 9월 부산 출신의 의열단원 박재혁은 중국 고서(古書) 상인으로 위장해 일본 나가사키(長崎)를 거쳐 부산으로 입국했다. 한 달 전 상해에서 박재혁은 김원봉과 곽재기 등 여러 명의 단원을 체포한 부산 경찰서를 타격하기로 결정하고 실행에 나선 길이었다. 박재혁은 배 위에서 김원봉에게 "허다한 수익은 기약할 수 있으나 그대 얼굴은 다시 보지 못하리라(可期許多收益/不可期再見君顔)"라는 편지를 쓰고 보내는 사람을 '와담(臥膽) 배(拜)'라고 적었다. 와신상담의 심정으로 결행하겠다는 결의의 표현이었다. 마지막으로 적은 7언절구는 "열락선타지말고(熱落仙他地末古) 대마도로서간다(對馬島路徐看多)"라는 것인데, 자신의 이동 수단이 '연락선'이 아니며 '대마도'를 경유해 가는 것임을 보고한 것이다. 상해에서 헤어질 때 마지막임을 알았던 김원봉도 이 편지를 받고는 눈물을 흘렸다고 전한다.

박재혁은 1920년 9월 14일 아침 중국 고서적상(古書籍商)으로 위장해 부산 경찰서장 면회를 청했다. 서장 하시모토(橋本秀平)가 나타나자 박재혁은 폭탄을 터뜨려 하시모토를 죽이고 자신도 큰 부상을 입었다. 박재혁은 제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대구복심법원에서 무기형으로 감형되었지만 다시 고등법원에서 사형이 선고되었다. 그러나 박재혁은 '어찌 적의 손에 욕보기를 기다리겠는가'라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단식투쟁을 전개했다. 드디어 1921년 5월 10일 아사(餓死)했는데 일제는 폐병으로 병사했다고 달리 발표했다. 5월 14일 박재혁의 시신이 본가가 있는 부산으로 운구되었는데 부산 고관(古館)역에 도착했을 때 당시 신문은 "다수의 경관들이 출장해서 두려운 폭탄 범인의 시체까지 경계를 했다더라"고 전하고 있다.

과부의 몸으로 독자(獨子)를 키웠던 박재혁의 모친은 아들이 시신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에 정신을 잃었다. 12월 27일에는 밀양 출신의 의열단원 최수봉(崔壽鳳)이 밀양경찰서에 폭탄을 던졌는데 불발이어서 인명은 살상되지 않았다. 부산 지방법원의 1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검사는 항소했고 대구 복심법원은 1921년 4월 사형을 선고했다. 의열단의 잇따른 공세에 겁먹은 일제는 인명살상이 없는 사건도 사형이란 야만적 수단으로 대응한 것인데, 최수봉은 그해 7월 사형이 집행되었다. 일제가 의열단에 가졌던 공포는 그만큼 큰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최수봉이 사형당한 지 두 달 후인 1921년 9월에는 드디어 총독부에 폭탄이 투척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의열단(義烈團)이 활약하던 시기의 신문 보도를 보면 의열단을 때로 정의혈단(正義血團)이라고도 기록했다. 그만큼 의열단은 자신들의 희생을 전제로 일제 식민통치에 타격을 가해 조국의 독립을 달성하려 했던 직접행동조직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초개처럼 여겼고 그만큼 일제를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다.

상해 황포탄의 현재 모습과 1928년(아래 사진) 모습. 1922년 3월 의열단은 일본 군부의 실세 다나카 대장을 이곳에서 저격했지만 실패했다. [사진가 권태균]

님 웨일스가 쓴 아리랑의 주인공 김산(장지락)은 상해에서 의열단원들과 함께 생활했는데 그는 “이 단체(의열단)는 아나키즘(무정부주의) 이데올로기에 지배되었다”라고 회고했다.

김산은 “의열단원들은 마치 특별한 신도처럼 생활했고, 수영·테니스, 그 밖의 다른 운동을 하면서 항상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매일같이 저격 연습도 하였다…언제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으므로 생명이 지속되는 한 마음껏 생활했다…또 모든 한국 소녀들은 의열단원들을 동경하였으므로 수많은 연애사건이 있었다(아리랑)”고 전하고 있다.

김산의 선배 동지였던 김성숙(金星淑)은 의열단에 대해 “그때 젊은 사람들은 서로 죽으러 국내로 들어가겠다는 자세…그런데 국내로 한 번 나가려면 여비도 있어야 되고 돈이 많이 들어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 나가겠다는 사람을 모두 내보낼 수가 없어서 나중에는 제비를 뽑기도 했어요(혁명가들의 항일회상)”라고 회고했다. 김성숙은 또 의열단이 아나키즘으로 기울게 된 이유를 1921년 중국 천진에서 의열단에 가입한 아나키스트 유자명(柳子明)의 영향으로 회상했

다. 그래서 “의열단은 유자명의 영향으로 아나키즘을 수용하고 그들의 민족주의적 테러 활동에 아나키즘적 논리를 갖추게 되었다(오장환, 한국 아나키즘 운동사연구>)”고 평가받는다.

의열단의 잇단 공세에 당황한 일제는 1921년 7월 밀양경찰서에 폭탄을 던진 최수봉의 사형을 집행했다. 인명피해가 없는 사건임에도 사형으로 대응함으로써 의열단원의 또 다른 의거를 방지하고자 한 것이었다.

1 김익상. 조선총독부에 폭탄을 던지고 상해 황포탄에서 다나카 대장을 저격했다. 2 군복 차림의 다나카 기이치. 상해에서 운 좋게 살아남아 총리대신까지 오른다.

그러나 그 두 달 후인 1921년 9월 10일. 의열단원 김익상(金益相)이 북경 정양문(正陽門) 부근의 의열단 거처를 떠나 서울로 향했다. 단원들은 김익상에게 “장사는 한번 가면 돌아오지 않으리(壯士一去兮不復還)”라는 시구로 위로했다. 의열단원들이 거사하러 가는 단원들에게 즐겨 인용했던 이 시구는 사기(史記) ‘자객열전(刺客列傳)’에 나온다. 전국시대 자객 형가(荊軻)가 약소국 연(燕)의 태자 단(丹)을 위해 진왕(秦王:진시황)을 암살하러 떠날 때 친구인 고점리(高漸離)가 역수(易水)가에서 축(筑)을 타면서 위로하자 형가가 “바람이 쓸쓸하게 부니 역수가 차구나(風蕭蕭兮, 易水寒)”라면서 이 구절을 읊고 역수를 건넜다. 형가는 결국 진왕 암살 목전에서 실패하고 죽고 만다.

그러나 김익상은 “일주일이면 돌아올 것”이라면서 폭탄 두 개를 가지고 북경에서 봉천(奉天:현 심양)으로 가는 경봉선(京奉線)에 올랐다. 심양에서 압록강 대안 안동(安東:현 단동)을 거쳐 서울로 들어갈 계획이었다. 일본어에 능숙했던 김익상은 아이를 데리고 여행 중인 일본 여인에게 자신을 미다카미(三田神)라는 학생이라고 소개하고 일행이 되었다. 열차 내에서 검문하던 일경들은 일본인 부부로 여기고 지나쳤다.

남대문역(서울역)에서 일본 여인과 헤어진 김익상은 이태원에 사는 동생 김준상(金俊相)의 집에서 아내 송씨와 하룻밤을 보냈다. 다음날인 9월 12일 아침 김익상은 전기회사 공원으로 가장하고 남산 총독부를 찾아갔다. 이토 히로부미가 쓰던 통감관저가 1910년 이후 총독부로 변했는데 왜성대(倭城臺)라고도 불렀다. 작가 박태원(朴泰遠)이 해방 후 김원봉의 증언을 토대로 쓴 약산(若山)과 의열단(義烈團:1947년)에 따르면 김익상은 총독부를 지키는 무장 헌병을 보고는 그대로 지나쳐 일본 찻집에 들어가 맥주를 한 병 청해 마셨다고 전한다. 다시 총독부에 들어가려 하자 무장 헌병이 “누구냐”고 물었고 “전기를 고치러 왔다”는 답변에 통과시켜 주었다. 그렇게 조선총독부 폭탄투척 사건이 시작되었다.

당시 신문은 이렇게 보도하고 있다.

“12일 상호 10시20분에 조선총독부에 폭발탄 두 개를 던졌는데 비서관 분실(分室) 인사계실(人事係室)에 던진 한 개는 스즈키(鈴木) 속(屬)의 뺨을 스치고 책상 위에 떨어져 폭발되지 않았으며, 다시 회계과장실에 던진 폭탄 한 개는 유리창에 맞아 즉시 폭발해 유리창은 산산이 부서지고 마루에는 주먹 하나가 들어갈 만한 구멍이 뚫렸는데 범인은 즉시 종적을 감추어서 방금 엄중 탐색 중이요. 폭발하는 소리가 돌연히 일어나자 총독부 안은 물 끓듯해서 일장 수라장을 이루었다더라.(동아일보. 1921년 9월 13일)”

불발탄을 두고 사무원이 “폭발탄”이라고 외쳐 큰 소동이 벌어지는 와중에 두 번째 폭탄이 터지는 소리가 벼락같이 들렸다. 회계과장 기쿠야마(菊山) 등이 자리를 비워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식민통치의 심장부 총독부에 폭탄이 터진 것이다. 신문들은 미즈노(水野) 정무총감이 경무국장실에서 아오키(靑木) 서무부장, 마루야마(丸山) 사무관, 야마구치(山口) 고등경찰과장 등을 불러 “무슨 일을 머리를 모아 비밀리에 협의했다더라”고 전하고 있다. 박태원의 약산과 의열단은 두 번째 폭탄이 터진 후 김익상은 아래층으로 내려가면서 올라오는 헌병·경찰 등에게 일본어로 “위험하다 위험해, 올라가면 안 된다”고 소리치면서 내려왔다고 전하고 있다.

총독부를 빠져나온 김익상은 황금정(을지로)에서 공구를 모두 버리고 일본인 가게에서 일본 목수들 옷을 사 한강에서 갈아입고 평양행 야간열차에 몸을 실었다. 김익상이 평양→신의주→안동(단동)→봉천(심양)을 거쳐 북경에 돌아온 날이 9월 17일이었으니 자신의 말대로 일주일 만이었다. 의열단원 최수봉 사형 집행 두 달 만에 발생한 총독부 폭탄투척 사건에 일제가 경악한 것은 당연했다.

1922년 3월 초 상해로 간 김원봉은 북경의 의열단원들을 불렀다. 프랑스 조계 주가교(朱家橋)의 중국인 이발소 2층에서 김원봉·이종암·오성륜·김익상·서상락·강세우 등 의열단원들이 마주 앉았다. 일본 육군대장 다나카 기이치(田中義一)가 싱가포르, 홍콩을 거쳐 상해에 온다는 정보 때문이었다. 제26대 일본 육군대신(1918년 9월~1921년 6월)을 역임한 군부 실세 다나카를 저격하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오성륜(吳成崙)·김익상·이종암(李鍾岩)이 앞다퉈 결행을 자청해 순서를 조정해야 했다. 다나카가 배에서 내릴 때 오성륜이 1선을 맡아 저격하고, 이것이 실패하면 김익상이 다나카가 차로 향할 때 저격하는 것이 2선이었다. 이마저 실패하면 다나카가 자동차에 오를 때 이종암이 저격하는 것이 3선이었다.

1922년 3월 29일 기선이 상해 황포탄 공공마두(公共頭)에 도착하자 다나카가 마중 나온 인사들과 악수를 나눌 때 오성륜이 권총을 꺼내 저격했다. 적중했다고 생각한 오성륜은 “독립만세”를 외쳤지만 실제로 맞은 이는 곁에 있던 영국 여인 스나이더였다. 2선의 김익상이 승용차를 향해 도주하던 다나카에게 권총을 발사했는데 다나카의 모자창만 뚫었다. 김익상이 폭탄을 꺼내 옆의 전신주에 뇌관을 친 다음 다나카를 향해 던졌지만 불발이었다. 3선의 이종암이 군중을 헤치고 나가서 다나카가 탄 차량에 폭탄을 던졌지만 또 불발이었고 미 해병이 발로 차 바다로 빠뜨렸다. 1선, 2선, 3선의 공격이 모두 실패했으니 이 또한 운명이었다.

이종암은 재빨리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 던지고 군중 틈으로 몸을 숨겼지만 오성륜·김익상에

게는 일본 헌병·경찰은 물론 중국 경찰과 인도 순포(巡捕)까지 달려들었다. 둘은 허공에 권총을 쏘면서 구강로(九江路)를 지나 사천로(四川路)까지 도주하다 결국 막다른 골목에서 체포되고 말았다. 김원봉과 강세우, 서상락은 각각 자전거를 가지고 부두 근처에서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오성륜과 김익상은 상해 일본영사관 경찰서로 연행되어 혹독한 조사를 받았다. 조사 도중 김익상이 조선총독부 폭탄투척 사건의 주인공임이 밝혀지자 일제는 경악했다.

그러나 그해 5월 2일 오성륜이 영사관 감옥을 깨뜨리고 탈출하자 또 한 번 세상이 놀랐다. <ec2e>고등경찰관계연표 동아일보> 등에 따르면 오성륜은 일본인 죄수 다나카 쓰우이치(田中忠一)와 함께 탈출했는데, 다나카는 항주(抗州)로 갔다가 다시 상해로 돌아와 체포되었지만 오성륜은 오리무중이었다. 오성륜은 만주로 갔다가 독일을 거쳐 소련으로 가서 동방노력자공산대학에 입학하면서 공산주의로 노선을 수정한다.

오성륜의 탈출에 놀란 일제는 5월 6일 김익상을 부랴부랴 나가사키(長崎)로 압송해 재판에 회부했다. 1922년 9월 25일 마쓰오카(松岡) 재판장이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검사가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미요시(三好) 검사는 '피고 뒤에는 조선독립의용군을 위시해서 독립단이 뒤를 이어 일어날 염려가 있으니, 극형에 처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해 11월 6일 모리(森) 재판장은 사형을 언도했다. 김익상은 상고를 포기해 사형이 확정되었으나 이른바 은사(恩赦)로 무기로 감형되었다. 1927년에 다시 20년으로 감형되어 1942년에 만기 출소했는데, <ec2e>약산과 의열단<ec2f>은 그의 집으로 형사가 찾아와 데리고 나간 후 돌아오지 않았다고 전한다

독립운동의 노선 다툼은 치열했다. 크게 무장투쟁론자와 외교독립론자들의 노선 다툼이었는데, 의열단의 직접행동 노선에 대해 외교독립론자들이 비판하자 의열단은 단재 신채호에게 자신들의 주의·주장을 담은 선언문 작성을 의뢰했고 그 결과 '조선혁명선언'이 탄생했다.

상해의 일본조계지. 공동조계라고도 불렸던 일본조계지는 한 발만 들이밀면 바로 체포되는 독립운동가들의 무덤이었다. [사진가 권태균]

1922년 3월 의열단이 상해 황포탄에서 일본의 다나카 대장을 저격한 사건은 상해는 물론 전 중국과 일본, 한국까지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는 상해를 조계지로 나누어 차지하고 있던 서구 열강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일본 총영사관은 자신들이 관할하는 공동조계는 물론 한국 독립운동에 우호적이었던 프랑스 조계에도 압력을 넣어 한국 독립운동을 단속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공동조계와 프랑스 조계의 경찰 당국은 '불온행동' 단속 강화의 방침을 공포했다. 골자는 한인 독립운동가의 총기류 휴대를 억제하겠다는 것이었다. 주중(駐中) 미국공사 샬먼은 상해에서 조선으로 향하면서 "조선인 독립당(獨立黨)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산주의자의 행함과 같은 잔혹한 수단으로 나오는 데 대해 미국은 물론 세계 어느 나라든지 찬성치 아니하는 바이다"라고 유감의 뜻을 표했다. 미국의 이런 태도는 의열단에 대한 상해의 외국인 여론을 악화시켰는데, 문제는 여기에 임시정부까지 가세한 것이었다.

동아일보(1922. 4. 7)는 상해 임정이 "세관 부두의 폭탄사건(다나카 저격사건)에 대해 가정부(假政府:임시정부)는 하등의 관계가 없으므로 저들의 행동에 절대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성명을 냈다고 보도했다. 또 임정 측 관계자가 "독립정부 측과 저들은 하등의 관계가 없으며 조선독립은 과격주의를 채용하며, 공포수단을 취하여 달할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고 전한다.

그러자 의열단은 격분했다. 자신들은 박재혁·최수봉이 사형당하고 김익상·오성륜이 체포돼 혹독한 고문을 받고 있는데 격려는 못할망정 '관계 없다'고 선을 긋고 나서는 데 분노한 것이다. 의열단은 자신들이 무차별적 테러단체가 아니라 명확한 이념과 목표를 가진 혁명단체임을 내외에 천명할 필요성을 느꼈다. 그래서 김원봉과 유자명은 북경의 신채호를 상해로 초빙해 의

열단의 주의·주장을 담은 선언문 작성을 요청했다. 신채호 역시 의열단의 직접행동을 지지하고 임정의 외교독립론에 부정적이었으므로 흔쾌히 수락했다.

義烈團

1 조선혁명선언, '민중은 우리 혁명의 대본영이다,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한 무기다'라고 주장해 일제를 경악에 빠뜨렸다. 2 아나키스트이자 농학자였던 유자명. 김원봉과 함께 신채호를 찾아가 의열단 선언문 작성을 의뢰했다.

이렇게 탄생한 것이 '의열단 선언문'이라고도 불리는 유명한 '조선혁명선언'이다. "강도 일본이 우리의 국호(國號)를 없이 하며 우리의 정권을 빼앗으며, 우리 생존조건의 필요성을 다 박탈하였다"로 시작하는 '조선혁명선언'은 '식민지 민중이 빼앗긴 나라와 자유를 되찾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수단은 정의롭다'고 선언했다.

'조선혁명선언'은 모두 다섯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첫 부분에서 "강도 일본이 헌병정치, 경찰정치를 힘써 행하여 우리 민족이 한 발자국의 행동도 임의로 못하고 언론·출판·결사·집회의 일체 자유가 없어 고통과 울분과 원한이 있어도 벙어리의 가슴이나 만질 뿐"이라며 일제 식민통치의 가혹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선혁명선언'은 일제뿐 아니라 "내정독립이나 참정권이나 자치를 운동하는 자가 누구이냐"라면서 국내의 친일파나 개량주의자들의 타협노선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일제를 완전히 구축하고 독립을 쟁취하자는 게 혁명노선이라면 일제의 지배를 인정하면서 부분적인 정치적 권리를 얻자는 것이 개량주의 노선으로서 내정독립론(內政獨立論), 참정권론, 자치론 등이 있었다.

단군교(檀君敎)의 정훈모(鄭薰謨)는 1922년 3월 9일 일본 왕실의 일원인 귀족원 의원 고노에 후미마로(近衛文) 공작의 소개로 일본 귀족원에 조선내정독립 청원서를 냈다. 내정독립이란 일본의 통치를 인정하면서 조선 내정은 조선인들이 맡겠다는 주장이었다. 고노에 후미마로는 1933년 일본 귀족원 의장, 군국주의가 한창이던 1941년에는 사법대신을 역임하는 인물이고, 단군교는 나철이 대종교로 개칭하고 만주로 망명해 적극적인 항일운동에 나서자 단군교란 이름을 고수한다면서 적극 친일에 나섰던 단체였다.

참정권은 일본 정우회의 대의사(代議士) 다키 쓰네지(多木常次) 등이 1922년 3월 일본 중의원에 제출한 것으로서 내지연장주의(內地延長主義)의 일환으로 제청된 것이었다. 즉 식민지 조선에도 내지(內地:일본)와 같은 법령과 정책을 시행하자는 것이었다. 자치론 또한 일본의 지배하에서 일부 자치라도 획득하자는 것이었다. 신채호와 의열단은 이런 노선들은 친일파와 개량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야욕을 달성하기 위한 투항노선이라고 보고 있었다.

‘조선혁명선언’은 “일본 강도 정치하에서 문화운동을 부르는 자가 누구이냐?”라면서 “우리는 우리의 생존의 적인 강도 일본과 타협하려는 자나 강도 정치하에서 기생하려는 주의를 가진 자나 다 우리의 적(敵)임을 선언하노라”고 규정하고 있다. 내정독립론자, 참정권론자, 자치론자 모두 자신들의 적이라는 선언이었다.

세 번째 부분에서 ‘조선혁명선언’은 외교독립론과 준비론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외교독립론에 대해 “이들(외교독립론자)은 한 자루의 칼, 한 방울의 탄알을… 나라의 원수에게 던지지 못하고, 탄원서나 열국공관(列國公館)에 던지며, 청원서나 일본 정부에 보내어 국세(國勢)의 외롭고 약함을 애소(哀訴)하여 국가존망·민족사활의 대문제를 외국인, 심지어 적국인의 처분으로 결정하기만 기다리었도다”라고 비판했다. 신채호는 준비론에 대해서도 “실로 한바탕의 잠꼬대가 될 뿐”이라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신채호와 의열단은 “이상의 이유에 의하여 우리는 ‘외교’ ‘준비’ 등의 미몽을 버리고 민중 직접혁명의 수단을 취함을 선언하노라”라고 선포했다.

네 번째 부분에서 신채호와 의열단은 “강도 일본을 구축하려면 오직 혁명으로써 할 뿐이니, 혁명이 아니고는 강도 일본을 구축할 방법이 없다”며 혁명이 유일 수단이라고 선언했다. 의열단의 혁명론은 민중혁명론이었다. 다음은 신채호와 의열단의 주장이다. “구시대의 혁명으로 말하면, 인민은 국가의 노예가 되고 그 위에 인민을 지배하는 상전, 곧 특수세력이 있어 그 소위 혁명이란 것은 특수세력의 명칭을 변경함에 불과하였다. 금일 혁명으로 말하면 민중이 곧 민중 자기를 위하여 하는 혁명인 고로 ‘민중혁명’이라 ‘직접혁명’이라 칭한다. 오직 민중이 민중을 위하여 일체 불평·부자연·불합리한 민중 향상의 장애부터 먼저 타파해야 한다.” 같은 민족, 같은 국가 내에 어떠한 차별과 억압이 없어야 한다는 주장인데, 이 부분이 바로 ‘조선혁명선언’이 갖고 있는 아나키즘적 요소다.

신채호는 ‘민중’과 ‘폭력’을 혁명의 2대 요소라면서 폭력(암살·파괴·폭동)의 목적물을 대략 열거했는데, “1 조선총독 및 각 관공리, 2 일본 천황 및 각 관공리, 3 정탐노(偵探奴)·매국적(賣國賊), 4 적의 일체 시설물”이 그 대상이었다. 또한 ‘이민족 통치’ ‘특권계급’ ‘경제약탈제도’ ‘사회적 불균형’ ‘노예적 문화사상’을 파괴 대상으로 규정했다.

‘조선혁명선언’은 “이천만 민중은 일치로 폭력 파괴의 길로 나아갈지니라”면서 “민중은 우리 혁명의 대본영(大本營)이다.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한 무기다. 우리는 민중 속에 가서 민중과 손을 잡고 끊임없는 폭력-암살·파괴·폭동으로써 강도 일본의 통치를 타도하고, 우리 생활에 불합리한 일체 제도를 개조해 인류로써 인류를 압박하지 못하며, 사회로써 사회를 수탈하지 못하는-이상적 조선을 건설할지니라”라고 끝맺었다.

1923년 1월 ‘조선혁명선언’이 발표되자 일제는 크게 놀랐다. 간도 총영사 스즈키(鈴木安太郞)와 만주 해룡(海龍)현의 영사관 분관 주임 다나카(田中繁三)는 각각 1923년 5월과 7월 외무대신 우치다 고사이(內田康哉)에게 ‘불온인쇄물 조선혁명선언의 반포를 개시한 건’ 등의 보고서에서 “‘조선혁명선언’이 만주 지역에 배포되고 있다”면서 신경을 곤두세웠다.

의열단이 신채호에게 ‘조선혁명선언’의 집필을 맡긴 것은 이유가 있었다. 사실 의열단은 안창호가 탄피 제조기를 구입해 주고 김원봉·이종암 등이 상해에서 임시정부의 별동대로 불리던 구국모험단(救國冒險團) 단장 김성근(金聲根)과 합숙하면서 폭탄제조법과 사용법을 배울 정도로 가까운 관계였다.

그러나 임정 대통령 이승만이 한국의 위임통치안을 윌슨 미국 대통령에게 요청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상해 임정에 반대하는 인사들이 북경에 모이는데 신채호·이회영·박용만·김창숙 등이 그들이다.

이들 북경파의 일부 원로 독립운동가들과 젊은 아나키스트들이 1924년 4월 말 북경에서 재중국조선무정부주의자연맹을 결성하는데, 장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연구자들은 이회영의 숙소로 추정하고 있다. 창립 당시 회원은 이회영·이을규·이정규·정현섭(화암)·백정기·유자명 등 6명이다. 정화암은 ‘신채호는 순치문(順治門) 내 석등암(石燈庵)에 칩거하며 사고전서(四庫全書)를 섭렵하면서 역사 편찬에 몰두하느라, 유림(柳林)은 성도대학(成都大學)에 재학 중이라 참석하지 못했다’고 회고했다. 이 조직은 이회영의 자금 출자로 순간(旬刊) ‘정의공보(正義公報)’를 발간하다 1924년 10월 자금난으로 사실상 해체되지만 이후에도 이들은 재중국 한인 아나키즘 운동의 중심이 된다.